

유명 목수·단청장·기와장 참여

구인사 조사전 15년만에 완공

내달 5일 낙성법회 열어

상월원각 대조사 좌상 봉안

인간문화재 신용수씨 등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 단청장, 기와장 등이 참여해 장장 15년의 세월을 걸쳐 건립된 천태종 구인사 대조사전이 11월 5일 고상한 모습을 드러낸다.



○3층 다포집인 구인사 대조사전의 내부는 통층으로 상월원각 대조사의 좌상이 봉안된다.

적송 60만개가 사용됐다. 특히 일체 쇠못을 쓰지 않고 전체를 나무로 짜맞추어 건립했으며 지붕의 기와는 기와장 오세필씨가 특별히 고안한 황자(黃齋)기와를 사용하여 그 장엄함을 더하고 있고 단청 역시 문양상 세밀한 단청으로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수원 용화정사는 8일 네팔에서 1000승재를 열고 국민인간과 티베트의 독립을 발원했다. 사진 왼쪽은 성관스님.

네팔서 통일염원 천승재

용화정사 주최 스님 1200명 불교중흥도 발원

수원 용화정사 주지 성관스님(수원불교연합회장)은 8일 네팔 카부 만두 보트니트 불탑(세계 최대)에서 네팔의 티베트 스님 1200명을 초청해 인도·네팔·티베트 불교 중흥 및 남북통일기원 1000승재(千偈齋)를 거행했다.

수원불교연합회 소속스님 9명과 용화정사 신도 30명이 함께 한 인도·네팔 성지순례를 겸한 이번 천승재는 티베트 린포체 스님의 법문과 성관스님의 답례사, 감사장 및 선물 전달, 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광교산 야생화 심기

수원불교련 생태방생

우리꽃 심기를 통한 생태방생이 시범적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수원시불교연합회(회장 성관)와 수원환경운동센터(공동대표 박희영·정춘자)는 17일 수원 광교산 일대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산 보전을 위한 우리 꽃 심기 생태방생'을 실시했다.



영산재가 봉행되는 가운데 광산도 함께 방생된 이번 환경방생법회에서 성관스님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방생한 야생화 생태방생은 토종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해 나비와 기타 먹이사슬에 연결된 중생의 해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재경 기자

삼광사 국내최대 지장전 낙성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8일 국내 최대규모의 지장전 낙성 및 국지장보살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도용 천태종 종정스님, 은덕 총무원장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과 안성명 부산시장을 비롯한 7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도량을 가득 메운 가운데 거행됐다.(사진)



주지 덕수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전 낙성이 부처님의 부모은중(父母恩重)사상과 정토의 효사상을 현실의 생활에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6년 지장보살의 인력으로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으로

종단소식

조계종

은혜사 1191주년 개산재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주지 법의)는 15일 대웅전에서 은혜사 창건 1191주년 기념 개산대제와 함께 보살계 수계식을 가졌다. 이날 개산대제에는 의인 경복도지사, 박원기 국회의원, 조동호 영천부시장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가했다.

은혜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809년) 해탈국사가 창건했다. 수덕사 홈페이지 새단장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법장)는 최근 수덕사의 역사와 법맥, 본말사 소장 성보를 인터넷에 소개하는 등 홈페이지(www.sudoksa.com)를 새롭게 단장했다. 주지 법장스님은 "본말사의 각종 신행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산중사찰이 포교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 교육, 복지 등 종단 3대 정책분야와 관련 각각 20%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40%는 통리원과 교육원 등 종단행정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종의회는 또 제10대 종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효암(회락심인당 주교) 대정사와 현수(승원심인당)정사를 선출했다.

종조열반절 추념불사

16일 오후 2시 종인원 종조전에서 각계 종인, 성초 통리원장, 일제 교육위원장 등 종단 스승들과 손재석 위덕대 총장 등 종립학교 교장, 신협단체장, 진각각지대인 산하기관 대표, 신교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7주기 종조열반절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진언행자들은 현실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각오와 뜻을 펼쳐 종조님의 무진사원과 선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새 세기 문화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넓혀 나가자"고 했다.

태고종

장덕사 열반상 점안

순창 장덕사(주지 청암)는 11월 5일 열반상 및 10대 제자상과 반야심경석경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하는 열반상은 높이 3m, 길이 11m 규모로 마애 열반상으로는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법륜종

통일기원 영산대법회

총무원(원장 덕산)은 23일 총부 청원 현암사에서 종정 정각스님과 총무원장 덕산스님 등 스승들과 신도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평화통일 기원 및 호국선열 천도 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진각종

내년예산 164억원 의결

종의회(의장 휴명)는 19일 제 323회 정기종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163억9천여만 원을 의결하는 한편 심인당 인접부지매입 및 국제포교, 복지불사 등의 예산증가에 따른 울 추가경정예산 15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종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37억 7천여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또

총회종

종도 중앙 연수교육

종정 등광스님, 총무원장 남정스님, 포교위원장 청해스님 등 종도 150명이 동참한 가운데 16일부터 2박3일동안 제18차 중앙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원로원장 아용스님의 화엄경과 금강경 강론, 남정스님과 청해스님의 특강, 법계교사가 실시된 뒤 18일 회향했다.

제1회 지리산 천왕축제

발치산·토벌군 원혼달래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에서 숨진 주인과 발치산, 토벌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제1회 지리산 천왕축제'가 21, 22일 지리산 백무동 계곡 일원에서 열렸다. 지리산 천왕축제위원회(위원장 노길용)는 21일 해공스님이 주관하는 화관무, 나비춤 등의 공연과 함께 천도재를 올리고 한국시인협회 소속 시인들의 위령시 낭독 등의 행사를 가졌다. 또 영호남 화합의 차원에서 전북 남원시립극단이 초창대 가요를 방한 및 연주, 민요창 등의 공연을 하고 '발치산과 토벌군의 민담', 발치산과 토벌군 후

손 20여명이 함께 한 상여놀이를 재현했다. 김재경 기자

부산 보덕사 대웅전 낙성

송광사 부산 말사인 보덕사는 17일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비구니 금련회 회장 정훈스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의 7포 내 11포 51평 규모의 대웅전 낙성식이 봉행됐다. 특히 이날 이 지역 주인 포교에 전념해 온 주지 법인스님의 철순이어서 송광사 방장스님이 법인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법인스님은 "대웅전 낙성으로 지역주민들이 기도과 신행의 장을 가

지게 되어 기쁘다"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부처님 법을 펴는 포교도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정심사 대적광전 완공

경기 하남 검단산 정심사(주지 원경)는 29일 오전 9시30분 대적광전 낙성 및 부처님 점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낙성법회는 육법공양, 108참회,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스님의 법문과 교육원장 일면스님 등의 축사에 이어 만민만화 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0.91 성철스님이 생전에 머물기도 한 정심사는 1985년 창건됐다. 성철스님의 상좌인 원경스님은 큰스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각도 지을 예정이다. (031)791-7732 김재경 기자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8일 국내 최대규모의 지장전 낙성 및 국지장보살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도용 천태종 종정스님, 은덕 총무원장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과 안성명 부산시장을 비롯한 7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도량을 가득 메운 가운데 거행됐다.(사진)

주지 덕수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전 낙성이 부처님의 부모은중(父母恩重)사상과 정토의 효사상을 현실의 생활에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6년 지장보살의 인력으로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으로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7-9월이 걸리며비용은180만원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02) 396-2736 H-P 016)228-2358 E-mail : bukba@kornet.net FAX 02) 396-2735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 동양철학의 초보자 및 영예에 중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없는 기회로서 선천법도가 가고 후천법도로써 동양근본철학으로 인격완성과 수명, 재산, 건강관리를 보충할 수 있는 법과 현대의학과 한방으로도 치유가 되기 어려운 마음의 문을 여는 심연의 법과 동양철학과 풍수지리의 비장법인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으로 이어온 「감여보감」과 「일사보감」에 감추어진 명당비법 직강 - 정동법, 황천법, 팔호법, 산상제법 12생들이 들어가야 할 명당비법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직강 최첨단 기법,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육정신 동몽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은 언제 보아도 눈과 몸이 보이는를 따라 다는 신중피물한 비법은 세태양의 운기로써 흥한일을 당하려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집과 흥한대,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동몽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상을 집에 소장하시고 순금골드 99.9 달마 이상 지니시어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것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삼세수복하시어.

옹몽정진 개천절 대운맞이 제60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하늘이 열리는 10월 상달에 대운 받아 동몽군자되소서 후천미륵 달마법도의 태양에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와 있어도 보고듣지 못하는 원방각에 감추어진 해인도법의 대비법정법을 명심할지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10월 28일 10월 29일, 자시와 오시에 사명자들에게 다시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동몽군자 갖대를 얻어 중상은 180세 120세의 천안동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잠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동몽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범장보살 즉 열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게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거리는 참도에 끌리어 눈먼 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받고 중궁현황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박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이 법의 소식은 象·形·萬有 법의 갖대로 설계 범족, 범적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능하며, 다만 잠신에 끌리어 억망진장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육신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칼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는 하늘이 열리는 달이므로 몸에 진병, 잠신, 살이찌는병을 소멸 동몽군자들에 수명이 늘어나고, 육신을 보호하는 만법을 통할 수 있는 법회에 동참하시고 소원성취하시어 사명자, 진인도통하시어 일류의 스승 되소서. ●입 제 : 양력 10월 28일 밤 10시 ~ 10월 29일 亥時 ●회 비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토요일 밤 입제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광대역 선착순 일요일밤 해제 ●전 화 : (02) 821-6622 / 04 923-3110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25,95,26,303,26,142,26-3 모자원고교 하차 전화요금) 雄祖. 진인경신도통회장 天龍 泰日法師 대한불교 역사선원장 眞人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탕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존을 풀어놓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중편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인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특별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카드로도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본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평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